

TK통합 무산될라 9월까지 결론내자

이철우 지사, 지속 통합협의의 강조
광역정부의 권한만 강화한다면
현재의 중앙정부랑 다를 바 없어
시군 권한 높여야 참 균형발전
90% 합의, 장기화하면 역사 죄인
공론의 과정으로 신속 합의 제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통합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라며 통합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대구시의 시·군 권한을 줄이지는 안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 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다.

자치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것은 대구·경북이 서울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605km²지만 대구·경북은 1만9921km²로 33배나 된다”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

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증구난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와 같이 넓은 지역은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시장의 주장처럼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를 극복하려고 통합하는데 오히려 따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고 주장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 주민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가졌던 권한을 오히려 줄여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90% 이상 합의했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무산시키면 역사가 죄인이 된다”라며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장 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이 나서면서 우리는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오는 9월 말까지 결론내자”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급적이지 국가대개조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청사를 3개로 놓고 시·군의 권한을 대구경북통합시로 상당부분 옮기는 안’을 만들어 경북도에 이달 말까지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장기 과제로 가져가자고 선언한 바 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한미 동해안 상륙작전 27일 해병대 1사단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부대가 2024쌍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북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 가능 철도망' 만든다

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총 21개소에 신규 사업 건의해
신공항 급행순환·대순환철도 등
TK행정통합 메가시티 구축 박차
부울경·충청권·호남권 연계한
초광역권 철도망 구상 구체화

경북도는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 건의 및 도에서 자체 발굴한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총 21개소에 대해 신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TK행정통합 메가시티 발전 전략에 따라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 △대구경북 대순환철도 등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는 TK신공항 광역철도와 연계해 기존노선인 중앙선(의성-영천), 대

구선(영천-동대구)을 활용한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급행순환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km급 광역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70분대로 순환 운행하면서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22분, 영천-신공항 31분 등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공간구조 개편을 목표로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 대구권, 서부첨단도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대구경북대순환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망은 올해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울진)과 △기분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 △현재 운영 중인 동해남부선(포항-경주)과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부선(동

대구-김천) △점촌-영주선 △미연결 구간인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망이 구축되면 철도 접근성 향상으로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구상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청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이 미진한 △경북선(점촌-영주) △문경-안동선 △신규 발굴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경산-정도) △대구권광역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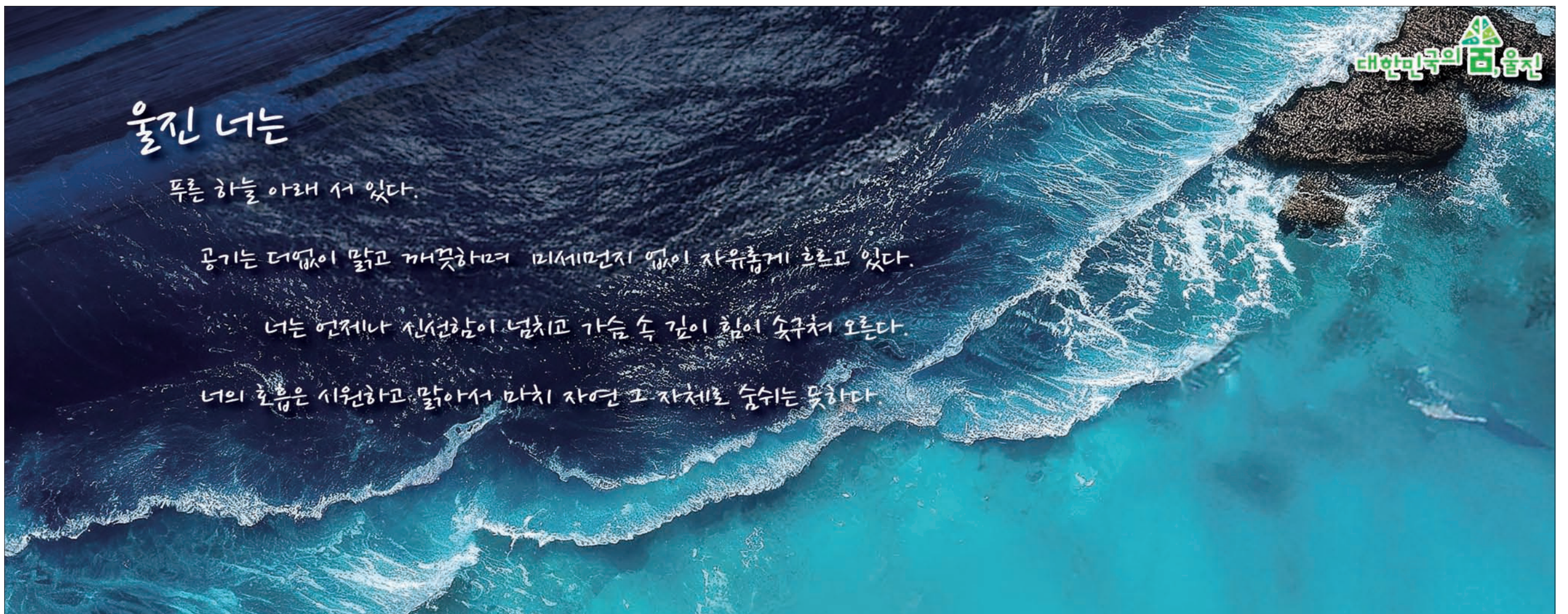
도(동대구-포항) △울산권 광역철도(북울산-경주) △청주공항-포항내륙철도(청주-포항) △안동-영덕선 등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해 건의했다.

건의 노선이 반영되면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일반철도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동해선(포항-동해)과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등 일반철도, 광역철도를 상호 연결하는 대구·경북 통합 메가시티 발전의 기반을 담당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 산업 육성 및 인재 채용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북이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시·군 및 국회와 협력해 대구·경북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안동, 추경 630억 편성... 민생경제 회복 '방점'

내달 2일 시의회 임시회 제출 예산 증액된 1조7630억원 규모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에 중점 예산 확정 시 사업 신속 추진

안동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3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오는 9월 2일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7630억원으로 늘게 된다.

일반회계가 630억원이 늘어 1조5920억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1710억원으로 규모를 유지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와 체외수입이 16억원 줄었으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9억원, 순세계잉여

금 등 보전수입이 607억원 늘어 일반회계만 630억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을 비롯한 긴급현안 해소와 농민들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복구사업비 41억원, 재해응급복구비 5억원 등을 투입해 신속복구에 나선다. 특히 사유 시설피해 재난지원금 22억원을 시비로 먼저 편성해 국비 교부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지원, 명절을 앞둔 수해민을 위로한다.

농민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3억 2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1억1000만원)과 함께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5억원)와 설계비(1억6000만원)를 편성해 농

기계 임대사업 확대도 준비한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2억4000만원)과 전통시장 내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비(4000만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3억4000만원과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20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조금 3억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고향올래) 10억원과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 장려금 5억원 등으로 청년인구 정착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보수사업 4억원과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3억5000만원과 지역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7000만원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챙긴다.

이 밖에 시민 불편해소 등 현안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50억원, 간선도로 개설 14억원 등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신속한 수해복구와 농업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뒷받침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고통을 최대한 해소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생태계 교란 야기하는 불용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 신속하게 구축해야

김옥랑 봉화군의회 5분 발언



김옥랑 봉화군의회원은 27일 제266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용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게 따르면 일부 의약품은 어류의 성(性)을 바꾸거나 물고기 기형의 원인이 되고 특히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으면 수파박테리아를 양산하는 등 보건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는 우리 사회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관공서를 비롯해 11개 약국과 26개 경로당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지만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를 비치한 곳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43개 지자체 등은 우정사업본부와 전용봉투 활용, 우체통(우편서비스)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구 북구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할 때마다 복지와 직원들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 등 불용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랑 의원은 "불용의약품 등의

부작용,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폐해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와 연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부작용 및 분리배출 생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빠른 시일 안에 우정본부 및 봉화우체국, 지역 내 11개 약국 등과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용봉투 제작 및 배포·활용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취원 기자jhy4430@hanmail.net

스포츠 관광산업 이끌어 '생동 넘치는 경주' 브랜드 개발

경주시의회 의원 3인 5분 자유발언 오상도, 해파리 개체 급증과 관련 어민 피해 대책 수립 필요성 강조 최재필,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제안 LCK 결승·통영 예시로 분야 확대 정종문, 정부 원자력 정책 홍보 등 주민수용성 높여 신뢰·지지 얻어야



오상도 의원



정종문 의원



최재필 의원

지난 26일 오전 열린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상도 의원, 최재필 의원, 정종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오상도 의원이 "해파리 개체 증가로 인한 어민 피해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수는 현상에 따라 평년보다 2개월 빠른 올해 5월부터 해파리 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오 의원은 "8월 중순 기준 56.5%의 출현율을 보이는 노무라입 깃해파리로 인해 수확한 해산물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어구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서객이 급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연안 개발 및 오염물질 방류로 인해 바다에 영양분이 과도하게 공급돼 발생하는 문제라며 집행부에서 해파리 피해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해파리 수매사업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오상도 의원은 "경주시 집행부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필 의원이 '경주시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의 관광이 단순히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에 개최되는 'LCK 서머 결승전'을 경주 스포츠 관광산업의 신호탄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e스포츠를 포함한 새로운 관점의 스포츠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남 통영시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업무협약을 예로 들

며 경주시에서도 먹거리 관광산업에 미래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창업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관광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생성형AI, 무인화,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경주시가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종문 의원이 '정부 원자력 정책 홍보 및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폐기와 전력 다소비 산업 비중의 증가로 인해 신규 원전 및 SMR 건설에 대한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이 예정돼 정부의 원전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원전 6기, 한수원,

중·저준위 방폐장 등 다양한 원전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 지역 간 인센티브 및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추가건설 문제 등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성 원전의 설계 수명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계속 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점 등 경주시가 여러 원전 정책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주시민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종문 의원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각도로 주민수용성 제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민주 경북도당·포항남울릉위 '허대만법 제정과정' 추모 특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허대만위원장 2주기를 맞아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정'을 주제로 추모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인들을 비롯해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 임미애 국회의원, 박태식 전 포항시의회의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 박희정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내년 이번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30년이 되는 만큼 성과와 한계를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 7번이나 도전하고도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허대만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고 역설했다.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지난 2년간 지역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허대만법 제정은 허대만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길 일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8월 22일 향년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1995년 26세 전국 최연소 포항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의원, 국회의원 4회, 포항시장 2회 출마했으나 강고한 지역주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낙선한 바 있으며 2017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성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늘봄

조기퇴근 돌봄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학교 돌봄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심야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도, 몽골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진출 '물꼬'

경제부지사·국내 에너지 기업들 몽골 울란바토르 전략포럼 참석 협력 방안·탄소중립 발표 토론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한-몽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몽골 간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포럼에서는 한-몽 핵심 광물 협력 방

안 및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등 2가지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숙 前 UN대사, 박영준 안세재단 이사장,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장영진 대한무역보험공사 사장, 초이질수령 몽골 에너지부 장관, 잔당사타르 몽골 대통령실장, 강투무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등 주요 기관·기업인 등 20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양 부지사는 축사에서 "경북도는 울란바토르시와 지난 2007년 우호 협력을 체결한 후 농업, 도시개발,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했다"며 "이번 포럼에서도 양국 간 공동

의 문제를 짚어보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폭넓은 토론을 통해 한-몽 간 미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울란바토르시는 지난 2018년 5월 에너지 분야 업무 협력을 계기로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시스템 실증사업(3억원, 울란바토르시 주택 7개소)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도는 몽골의 미래 전략 사업에 경북의 우수한 에너지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함께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포럼 참여기관들과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양 부지사는 이날 포럼 참석에 앞서 국가 간 탄소배출권 관련 에너지 분야의 정책 공유와 ODA, EDCF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불간토야 몽골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양 부지사는 면담에서 몽골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산업화 진행이 상대적으로 게르촌 등 도시 외곽이 열악해지는 현상이 지구촌 지방 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로 인식을 공유하고 경북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소개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교육청-교사노조, 교육현안 '머리 맞대'

2024학년도 정책협의회 개최 보결 수당 등 주요 의제 논의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정책국장장 업무 담당 장학사, 주무관, 경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미희) 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상반기 경북도교육청-경북교사노동조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사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는 지난 2021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회 실시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북교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청원휴직 및 과건근무허가 요구 △교원 보결 수당 기준 금액 인상과 점심시간 보결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공문을 통한 학교 의견수렴 시 교사 의견 누락 문제 제기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교사 개인정보 삭제 협조 요구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과다 해소 요구 △의무 행사

시 교사 차량 운행에 통한 학생 인솔 문제 등 6가지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교사의 청원휴직과 과건근무허가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확대, 보결 수당 기준 금액과 수당 지급 범위 설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삭제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상황과 검토 과정을 청취하고 학교 현장의 실태를 이해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고 현장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북교육이 함께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농업기술'로 중아공 농업경제 새바람 일으킨다

관계관 17명 道농기원 내방 새마을운동·농업기술 연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관 17명이 경북도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26일 경북도농업기술원을 방문했다.

대학교수, 정부 관계자, 지역지도자 등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계관 17명은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기술원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험포장에서 직접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영남대학교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됐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레소토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오늘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대학과 협업을 통해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해 아프리카의 빈곤 탈출, 농업주도 경제성장, 식량 증산, 농업기술 개선 등을 지원한다.

연수단 대표인 케레비 앙리 클로테

르 교수는 "경북의 선진 농업기술과 새마을운동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농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 농촌의 현대화를 이룩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영숙 원장은 "이번 연수가 양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나뉘 국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교육행정 등 5개 직렬 223명 20대 합격자 57% 가장 많아

경북교육청은 26일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23명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합격한 인원은 5개 직렬 223명으로 이는 동점자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른 양성평등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인원이다. 특히 최종 합격자 중 장애인 8명과 저소득층 4명을 선발해 공직 임용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모집구분별로는 △교육행정(일반) 170명 △교육행정(장애) 8명 △교육행정(저소득) 4명 △보건 4명 △기록연구 3명 △운전(일반) 14명 △운전(봉화) 1명 △시설관리(일반) 1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89명(39.9%), 여자 134명(60.1%)으로 여성 합격자가 우세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7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5명(33.6%), 40대 17명(7.6%), 50대 4명(1.8%)이 합격했다. 또 최연소 합격자는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사회적 가치 실현 '힘'

ESG경영 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6일 ESG경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단은 올해를 ESG경영 성장의 해로 삼고 '기억하고 계승하는 나라사랑 정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이라는 ESG경영 비전 달성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해 ESG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재단 ESG경영 위원회는 재단 임직원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

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ESG경영 추진 계획 의결,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결과보고가 이뤄졌으며 ESG위원들의 제언을 통해 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위원들의 고견청취와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희원 대표이사는 "ESG경영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경북도호국보훈재단에 특화된 ESG경영을 실천하고 호국보훈 가치를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직접 보는 교육 민원서비스 안내 '눈에 띄네'

경북교육청, 홍보 동영상 배포

경북교육청은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행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본청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소개하고 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분여 분량의 동영상은 '민원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교육청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 유아용 의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우산대어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민원실 공무원의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들의 불편

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가림막과 녹음 전화, 비상벨, CCTV, 웨어러블 캠 등의 다양한 안전장비를 소개하고 특이 민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와의 합동 모의 훈련 등의 내용도 안내했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깔뎀쿨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행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작된 동영상을 통해 민원인들이 교육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임금체불 추석 전 집중 청산 나선다

포항고용노동부, 9월 13일까지 지역사업장 84곳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 26일~9월 13일), 84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합동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건설협회, 외식협회 등에 회원사의 체불예방을 위해 공동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화 통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용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월 26일~9월 13일)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 대구,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 만전

유통업체·관계기관과 대책회의 원산지 표시·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행위 대해 지도점검 성수품 중점 관리 품목 33개 선정 농수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운영 9월 11일~15일 '최대 30%할인' 시,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키로 업소 배달료·물품 등 지원 실시



대구시는 27일 산적청사에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과 성수품 공급 현황 점검을 위해 유통업체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2024년 추석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수·축산 도매법인, 대형유통업체 등이 참여해 각 기관별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대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며, 2023년 12월(2.7%) 이후 2%대로 유지 중이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비 기준 각각 2.7%, 6.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27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9개 구·군과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가격표시 이행 준수, 원산지 표시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격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명절 성수품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24개소에 판매하는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 서비스요금(5개)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 '물가동향'에 공개한다.

특히 올해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축산물 공급물량을 점검해 산지 집하 활동과 출하를 독려하고, 도매시장 수급 가격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눈누리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지류형 기준)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새문·칠성·팔달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눈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소비촉진행사를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주요행사로는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9월 6일~8일 두류정주장)해 3만원이상 구매자에게는 생선전 증정 및 무료배송을 실시하고 △도농상생 한우소비 촉진행사(8월 30일~9월 1일 대구스타디움 태극광장)를 진행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농협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추석맞이 대구농협 직거래장터(9월 12일, 13일 농협 대구지역본부 앞)를 열어 추석 성수품을 10~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주요 유통업체도 추석맞이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선물세트 사전 예약 시 선물세트를 10~20% 할인 판매하며, 더현대 대구는 명절 제수용품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고, 대구신세계도 명절 성수품에 대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의 경우는 명절선물세트 사전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홈플러스는 명절 성수품 품목들에 대하여 할인행사 및 1+행사를 진행하는 등 물가안정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더불어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대구로'를 통해 실시했던 착한가격업소 배달지원(주문 1건당 배달료 2000원 할인)을 오는 9월부터는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월 3만원의 상수도 요금 할인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세제 등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폭염 등 기상악화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지만 민관이 협력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해 명절 이후에도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의성 단복면 복지팀, 소중한 생명 살려

고독사 위험 노출된 독거노인 독촉안부확인서비스로 구해



의성군 단복면 복지팀은 지난 22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은 평소 외과와 단절된 채 지내고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였다. 이에 단복면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고독사 관리사업인 '독촉안부확인서비스'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했으며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알림이 19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부확인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당일에 알림이 발생해 오후 4시경 안부확인을 위해 복지팀장과 마을돌보미가 방문했다. 당시 현관문이 잠겨있고 기척이 없음을 느껴 119에 신고, 오후 5시경 도착한 구급대원이 화상실 청문을 통해 집안으로 진입 후 현관문을 개방하고 기척이 쓰러져있던 어르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어르신은 평소 질병과 더불어 인한 탈수, 영양부족이 심해 현재는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어르신의 보호자는 "평소 몸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고 우리 3남매도 멀리 살고 있어 걱정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몰라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우리 가족 대신 가족보다 더 잘 챙겨주신 복지팀과 마을돌보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천시, 안전한 축산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수입산 국산 둔갑 판매 등 꼼꼼짜마 9월 9일까지 '특별 단속반' 운영

영천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시 공무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반 6명이며, 단속대상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축적판매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 259

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 △축산물과 접촉하는 비위생적 작업환경과 장비, 도구 △위생복, 위생장갑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수입 쇠고기 및 젓소·육우 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축산물의 수요가 증



가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열 기자jy92920@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화랑마을 야외 수영장, 1만명 발길... 도심 속 피서지 역할 '톡톡'

수질 관리·안전 조치로 '큰 호응' 모바일 입장대기 시스템 도입 문자 발송 통해 방문객 불減 ↓

경주 화랑마을 내 문무야외수영장 방문객이 45일 동안 9691명을 기록했다. 27일 화랑마을에 따르면 문무야외수영장은 해마다 7-8월 시즌제로 운영되며 올해는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25일

까지 운영됐으며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확행'을 선물했다. 해마다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문무야외수영장은 올해도 운영 전부터 이용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간 수영장의 동시 수용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서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돌아간 방문객도 많았다. 이에 화랑마을은 올해부터 모바일 입장대기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인원들에게 입장 가능 문자를 발송해 입장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화랑마을은 쾌적하고 깨끗한 수질과 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 3회 정기 검사 외에도 수시 검사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화랑마을은 문무야외수영장 이용객뿐 아니라 근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랑마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라이프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독려

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문무야외수영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은 3274만7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시설 보수를 거쳐 내년 7월 재개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은열질환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고생한 화랑마을 직원들과 이용객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주낙영 시장, 농민들과 수확의 기쁨 나누다

남산동 일원 첫 베기 행사 오찬 나누려 고충 청취·격려

주낙영 경주시장이 27일 남산동 일원에서 실시한 올해 첫 베기 현장을 방문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베기 현장에는 이동협 시의회 의장과 최준식 경주농협 조합장, 안영석 경주농협특수미쌀작목회 회장 및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벼 작황을 점검한 후 직접 콤팩트에 시승해 벼 베기 작업을 시연하며 농민들이 키운 벼를 수확하는 체험을 했다. 이어 농민들과 오찬을 나누

며 벼농사 재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수확한 쌀은 조생종인 해담벼로 지난 4월 21일 첫 모내기를 했다. 경주농협특수미쌀작목회는 이번 베기 행사를 시작으로 130ha에서 쌀 660t을 수확할 계획이다. 이후 수확한 쌀은 경주농협을 통해 이사가금 쌀로 출하된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는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라며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좋은 날씨가 이어져 풍년 농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성진기자wba112@daum.net

동국대 WISE GTEP사업단, K-수산식품 우수성 전 세계 널리~

日 국제 수산업 박람회 2024 참가 글로벌 진출 무역 마케팅 활동 지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국제 수산업 박람회 2024(Japan International Seafood & Technology Expo 2024)'에 참가해 한국 해양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최고 수준의 국제 수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전 세계의 메이저 수산 식품업체 글로벌 유통업체 및 바이어들이 참가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 GTEP 18기 중선별된 4명의 요원(정유빈, 이현준, 최재우, 김용재)은 한국기업인 바이오션



과 ㈜비마린 업체와 MOU를 체결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무역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바이오션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로 다양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출, 판매하는 기업이다. 또한 ㈜비마린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해양 기자재 개발 및 생산을 통

해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앞장서는 혁신적인 해양 전문 기업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일어일문학전공 4학년 이현준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해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

다. 앞으로도 GTEP요원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GTEP 사업단장인 김미정 교수는 "이번 일본 국제 수산업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한국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GTEP 사업단의 자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산업융합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주관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사업단)에 선정돼 사업단 운영 및 해외 현장 교육, 실무컨설팅 지원, 국내외 마케팅 현장실습 등 지역특화 형태의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지역 물가안정 돕는 착한가격업소 '든든' 황리단길서 홍보·캠페인 실시

경주시는 지난 26일 황리단길 일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물가안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물가모니터요원, 착한가격업소 회원을 포함한 시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근 상인들



과 관광객에게 물가안정 홍보를 위한 물품과 착한가격업소 유인물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따른 경주페이 추가 캐시백 제공과 카드사 연

계 캐시백 혜택 등도 안내했다. 유영숙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

사를 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市 청소년합창단, 양산전국합창대회 '대상'

본선 10개 팀과 열띤 경쟁 펼쳐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이 지난 24일 양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2회 양산전국청소년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차 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경주, 거제, 부산, 사전, 양산, 울산 지역 의 총 10개 합창단 370명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은 'Lux Aeterna(영원한 빛)', 'La Bamba'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욱 지휘자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매주 일요일 꾸준히 연습해 온 열정이 전국대회 대상이라는 결실을 맺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시에서도 앞으로 이들의 꿈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합창단은 오는 9월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울산남구구립합창단 창단연주회 특별공연,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주제 공연, 제20회 부산국제합창제 참가, 11월 코리아스포니브라스 정기연주회 특별 초청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22일에는 제5회 경주시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통해 청소년합창단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할 예정이다. 손동현기자doeh0311@naver.com

익사를들은 도시 미래를 담은 경주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돼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2024 K-메디웰니스 페스타 '성공적' ... 글로벌콘텐츠 가능성 확인

방문객 2만여명, 성황리 막내려 내년에도 대구의 특성 잘 살린 웰니스의료관광 사업 적극 추진

'한의학, 웰니스를 探(탐)하다'를 주제로 지난 24일-26일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 K-MediWellness Festa (케이-메디웰니스 페스타)'가 방문객 2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페스타는 특히 전 세계 53개국, 외국인 3000여명이 참석하는 2024 국제 이론 및 응용학회(ICTAM)와 같은 기간에 열려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모델인 대구형 K-메디 웰니스 관광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며 글로벌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총 5개의 테마관으로 펼쳐진 이번 페스타의 경우 대구시한의사회 속 한의사가 선보인 '한의체험관'에서는 소



아·청소년, 여성질환, 노인성 질환,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체험과 체험관리 및 교정을 위한 추나 체험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고, '한의학 산업관'에서는 한의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K-뷰티관'에서는 대구 의료관광 홍보와 함께 아로마, 천연비누, 한방삼푸, 천연화장품, 뷰티 기기 등 대구 우수 중소기업들의 뷰티&

미용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웰니스 문화관'에서는 힐링콘서트는 물론 아로마 DIY, 천연가습기 만들기, 자개공예, 한방삼푸 만들기, 꽃차 만들기 등 '전통'과 '한방'을 주제로 한 웰니스 강좌 '힐링클래스'도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한약재를 이용한 건식 족욕체험도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로 준비된 이번 페스타에는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인도 등에서 방문한 외국인 3000여명이 K-Medicine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체험, 전통한복체험, 자수공방·뜨개 공방, 아관문주 담그기, 한방향주머니 만들기, 약찜사기 체험, 한방차 시음 및 전통 다과 시식 등 대구형 K-MediWellness(케이-메디웰니스)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한의약과 웰니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고, K-MediWellness(케이-메디웰니스)가 대구의 특성을 잘 살린 미래산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웰니스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대 임상병리학과, 높은 교육 수준 입증

2024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서 재학생 8명 합격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최근 (사)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인증시험'에서 재학생 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험동물기술원 인증시험은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동물종별 해부 등 동물 실험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부여하는 시험이다.

임상병리학과는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의료검사와 실험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실험동물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실험동물기술원 인증서를 소지한 인재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기관과 제약회사 등에서 높은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학년 배현지 학생을 비롯해 3학년 이지현, 정라겸, 최초민, 이준형, 유선화, 황유리, 김민성 학생 등 총 8명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이스터대학 석사과정 바이오진단임상병리 전공에서도 7명이 이번 시험에 합격해 대학의 높은 교육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청소년 제안 정책,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노력"

청소년 참여예산 정책제안대회 31일 오후 2시 동인청사서 개최

대구는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동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10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청소년참여예산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한다.

대구가 주최하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

주관하는 청소년참여예산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과정 편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대회는 8회째로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모집된 19팀(1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했고, 7월 예산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10개팀의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에 청소년이 직접 만든 최종 정책 10개를 오는 31일 동인청사에서 발표·제안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라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여개 이상의 청소년정책이 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됐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돼 사업으로 운영됐다.

자세한 운영사항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053-659-6226)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나눔수록 더 커지는 행복' 달성군, 찾아가는 푸드마켓 운영

취약 주민에 식품·생필품 제공 결식우려아동 방학 기간 동안 영양공급 위한 식사대용품 전달

달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푸드뱅크와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푸드마켓·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어르신에게 원하는 식품

과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해 나눔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이다.

특히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한 'hope food pack' 사업에 선정돼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295명의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대용품을 제

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사푸드마켓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480가구에 월 10포인트(약 3만원 정도)를 부여해 식품 및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3주차에는 화원읍 사무소를 시작으로 옥포읍, 하빈면, 구지면, 유가읍, 가창면, 현풍읍사무소 등을 요일별로 찾아가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해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부물품은 0.5포인트로 책정된 음료수부터 라면, 참기름, 간편조식식품, 화장품 등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달성군 푸드마켓·푸드뱅크는 18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달성푸드뱅크(053-616-1376)는 논공읍 논공로 697-9, 달성푸드마켓(053-588-1375)은 다사읍 대실역북로 2길 101-6에 2개소가 있다. 지역 내 기업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부품은 100%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찬희 기자jongchan2114@naver.com

폭언·폭행 악성민원 현장 대응력 높인다

대구 종합민원실, 비상모의훈련

대구는 27일 동인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중부경찰서와 청원경찰 합동으로 민원공무원, 경찰, 청원경찰 등 20여 명이 참석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구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대비 대응반을 구성해 중부경찰서와 청원경찰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비상상황과 같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4개조의 비상대비 대응반별 임무를 편성해 민원인 폭언 시 상담자 개입 진정 유도, 청원경찰 제지,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촬영 및 비상벨 호출, 민원담당 공무원 대피, 경찰 출동 및



민원인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들어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에 상대로 욕설, 폭력 등의 행위를 하면서 위협 부당한 상황을 요구하는 악성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초기대처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달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천군민들, 용두천 기후대응댐 건설 “좋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군민의견 수렴 결과 ‘다수 환영’ 적정성 검토·보상 지원안 등 논의 농작물 생육환경 우려 목소리도

예천군과 환경부는 지난 21일 청송년수련관 극장에서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는 댐 건설을 위한 첫 단계로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향후 절차와 보상·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분은 안전한 예천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댐 건설에 뒤따르는 주변 지역 정비사업(마을회관 신축, 댐을 랜드마크로 한 관광 자원화, 태양광 등 설치)를 통한 주민 이익금 배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가 제기됐다.
효자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향후 수몰지와 인근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과 영농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개, 습도 등의 환경 변화로 농작물 생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관계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영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된 홍수조절용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얼큰 ‘영양의 매운 맛’ 수도권 취향저격

영양고추 HOT페스티벌 개최 29~3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농특산물부터 체험까지 ‘다채’

영양군은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정지역 영양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의 직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도농상생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게 된 이번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K-매운맛! 영양고추! 맛보러 오이소’라는 주제로 막을 연다.
올해 16회째로 농특산물 전시·판매,

군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개회행사, 생방송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청 광장을 뿔뿔히 물들일 이번 행사는 영양고추 테마동산과 영양고추 퀴즈쇼,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3일간 진행되는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 고춧가루 가공 업체로 구성됐으며 최고 품질의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다양한 농특산물을 통해 ‘상생고리형성’의 준비를 마쳤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의성군 ‘읍면·마을·이웃’ 돌봄으로 건강한 노후 환경 조성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 전문가 한자리... 추진 경과 보고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 동시 개최 농촌형 돌봄돌봄 모델 구축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쟁점임’

의성군은 지난 28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 및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돌봄을 위해 뜻을 함께한 주민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민-민 상시돌봄 발대식과 2부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 발대식에는 구성원인 행복기동대와 마을돌보미들이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특화사업인 ‘민-민 상시돌봄체계’는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성군 자체적으로 구축한 주민 주도형 돌봄체계로 ‘읍면·마을·이웃’ 단위의 인적 안전망인 행복기동대 183명, 마을돌보미 400명, 이웃돌보미 283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포럼은 ‘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 1년, 경과와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의성군의 그간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최기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 설명과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통합돌봄연구센터장)의 ‘의성군 밖에서 바라본 의성군 통합지원 추진 1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진

업 경북대학교 의학과 교수, 김유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지자체 중 대구·경북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해 7월 첫발을 떼고 지금까지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번 발대식과 포럼을 바탕으로 의성군 시범사업 2년 차에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이 되도록 민관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공중심 돌봄의 한계를 극

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민-민 상시돌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김주수 군수는 “의성군은 지난 1년간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형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범사업 내실화와 고도화를 향해 전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 청년 근로자 안정적 지역 정착 ‘앞장’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문경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45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 중인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청년 인구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인구 소멸 대응의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하에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의 나이,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바 있다.
올해 11명의 기능인력 청년인턴들에게 총 6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더 큰 영주로 도약 초석 마련... 2025년 업무보고회 개최

주요 사업 추진·업무 계획 수립 국가산단 조성 등 현안 품목 점검

영주시는 27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시청 강당에서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그룹별로 ‘2025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계획을 체계·전략적으로 수립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영주호개발과와 지방시대정책실 신설 후 첫 업무보고로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영주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영주호 개발 사업, 저출생 극복 사업 등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기반인 농업의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민선8기 2년간 영주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 영주담 준공, SK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유치, 지

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남은 2년 동안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확실하게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이제는 영주시의 건설한 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며 “내년도는 국도비 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본예산 1조를 뛰어넘는 더 큰 영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안동 전통주의 짝궁 찾기

내달 6일까지 안주 공모 참여 모집

안동시와 (사)안동시관광협회는 전통주와 안주의 만남 ‘기미주안(氣味酒案)’ 사업을 위한 안주 공모전 ‘식객 발굴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인 기미주안(氣味酒案)은 안동의 전통주와 고유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객 만족도 증대,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 지역민의 체류형 관광기반 강화, 지역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주 안주 공모전 ‘식객 발굴전’ 공모는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을답다 누리집(https://addmo.kr/)을 참고하거나 (사)안동시관광협의회(054-841-2433)로 문의하면 된다.
요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연령·성별·지역을 넘어 신개념 안동 안주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시상자에게는 기미주안 10매 등재, 판매기획권 부스 제공 및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오영수 기자toms727@nate.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상주시장 “공설추모공원 부지 재공모하겠다”

재공모 결정 담화문 시민에 발표
사업 갈등·지연 심려 끼쳐 최종
새 동력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대폭적 인센티브·발전계획 지원



상주시가 상주공설추모공원 부지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공설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시민에게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 시장이 시민에게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시장의 책임자로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부지 재공모 결정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추모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나 표류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인 중요한 사업이며 단순히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에 합창읍 나한리 일원을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했으나 인근 지역 간 갈

등으로 사전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차에 걸쳐 승인되지 않았고 올해 4월에는 경북도에 공동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을 요청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지 재공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창 나한리 추모공원 부지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심의·의결됐으므로 이에 건립추진위원회의 결사항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 지역간 갈등에 대해서는 “상주와 인근 지자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형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시장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주-문경은 생활권을 같이 하고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므로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의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부지 재공모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계획과 투명

한 절차에 따라 부지 재공모를 진행할 것이며 부지를 유지한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인센티브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조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내야 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추모공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며 향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상주시의 품격과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257억원으로 상주시 합창읍 나한리 산12-7번지 일원 9만182㎡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해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지역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상원)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임철환기자changwan12@naver.com



(주)우진테크 “따뜻하고 살기 좋은 구미 되길”

22인치 PC 모니터 100대 시에 기탁

구미 공단동 소재 (주)우진테크가 PC 모니터 22인치 100대(2500만원 상당)를 구미시에 기탁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26일 김장호 시장, 신동현 (주)우진테크 대표, 김경도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주)우진테크는 PC 모니터 제작 및 도·소매, 컴퓨터 반도체 칩 제작 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기탁받은 PC 모니터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등 2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동현 대표는 “복지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구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익문기자ub0104@hanmail.net

김천시, 무주·영동군과 주민 복지 증진 ‘힘’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 3개 시·군 관계자가 지난 26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협력 운영 중인 ‘산골 마을 의료·문화 행복 버스’ 사업 관련 성과 보고 및 향후 사업 운영 방향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6년 동안 이어져 온 행복 버스 사업의 추진 결과와 해당 사업의 종료 방안,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산골 마을 의료·문화 행복 버스’ 사업은 행정

구역을 달리하는 경북도, 충북도, 전북도 접경 3개 시·군이 협업해 오지 마을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장비 노후화와 전문 진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박노송 기획예산실장은 “행복 버스 사업은 의료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었다. 앞으로도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주민 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고령군의회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치’ 촉구

후반기 첫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설립 지역 형성성 있는 선정 위한
국가유산청 적극 중재 강력 촉구

고령군의회는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희순 의원은 제9대 고령군의회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제300회)를 맞아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고분수의 57%, 전체 고분군 면적의 44%를 가지고 있는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분군과 관계없는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했다.

고령군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설립위치를 서열화해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용역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과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

기구의 설립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7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현안 등 총 20건에 대해 심의 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일호기자hoyal515@daum.net

성주군 생활개선동우회

직접 만든 사랑의 반찬
취약계층에 전달 ‘훈훈’

성주군 생활개선동우회(회장 심경옥)는 지난 26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의 기력보충을 위해 반찬 나누기 봉사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생활개선동우회 회원 30여명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5종류의 반찬으로 구성된 ‘반찬세트 40개’를 직접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반찬을 받은 어르신은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에 직접 준비한 반찬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순한 반찬 제공을 넘어서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생활개선동우회 심경옥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줘 감사하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l515@daum.net

칠곡 지천면, 화재 발생 대비 소방합동훈련

칠곡군 지천면은 지난 23일 지천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 내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지천119안전센터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해 유사시 소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면사무소 직원과 방문 민원인 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훈련은 관공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사고를 대

비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화재 발생 상황에 따라 △화재상황 전파와 119 신고 △소방 발신기 작동 △직립 및 민원인 대피 유도 △소화기 사용 및 작동 교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향상했다.

송홍달기자song031700@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기아충효대리점
대표 박종찬

경주시 태종로 382-3
☎ 054-742-1010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타당성재조사 심의 通

2차로 11.7km 연장, 1295억 투입
내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착공
국도 7호선 대안 경로 역할 '기대'

울진군은 지난 22일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2차로 연장(11.7km)에

총사업비 129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터널 3개소가 포함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7% 증액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는 기존 국도88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를 1880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줄이고 정책성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손병복 군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온정~원남 간 국지도 69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박형수 국회의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해 울진군과 중앙정부, 경북도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한뜻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이 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후 오는 2025년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에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재난 발생 시 국도 7호선의 대안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의 오지인 백암온천과 온정면, 매화면 일원의 응급 의료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향상되고 공사로 인해 약 1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손병복 군수는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울진군 온정면-매화면 구간을 시설 개량해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발 등 재해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주기자ksi09102@naver.com



영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일찌감치 완료'

폭염 고충 농가 위해 시기 앞당겨
농어민수당 전용카드로 지급 예정

영천시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경북도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농어민수당 전용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연 6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며 상반기 수당은 지난 6월 3일 농어민수당 전용카드로 지급했다. 영천시는 지난달 긴 장마와 이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병해충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당초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던 올해 농어민 수당을

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정착, 경영체 유지, 승계여부 등 자격검증을 거쳐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1만3680농가를 조기에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받은 농가는 별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기존 카드에 일괄 30만원씩 충전되므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농어민수당은 전국 단위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지역의 농협, 마트, 병원 등 모든 영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올해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면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울릉군, 성인봉 일원에 산마늘 종자 4990kg '항공 파종'

농업인 산악 추락사고 예방 목적
균일 살포로 자생지 복원 효과적

울릉군은 지난 23일 산림생태계 개선과 지속적인 입산물 채취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봉 일원 약 100ha 면적에 산마늘 종자 4990kg을 헬기를 이용해 '항공파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마늘종자 파종은 '산림생태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울릉군 대표 입산물인 산마늘의 지속적인 채취로 인해 자생지역이 점차 훼손된 곳으로 축소되는 문제로 농업인의 산악 추락사고를 방지하고자 농가로부터 산마늘 종자를 수매해 산마늘 자생지에 파종하는 사업이다. 항공파종의 장점은 험준한 지형에도 비행을 통한 효율적 접근으로 대규모 면적에 균일하게 살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생지 복원에 더욱 효과적이고 또한 노령화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제공한다.



울릉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약 1000kg의 명이 종자를 수매해 산림 내에 인력으로 파종했으며 2021년부터 파종 수량과 면적을 대폭 확대해 관광활기를 운영하는 ㈜더스카이의 협조를

받아 기존 사람의 손길을 대신해 항공 파종을 하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산마늘종자 항공파종으로 명이 자생지 복원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우

리 울릉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입산물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명 기자gst3000@naver.com

포항, 전기차 화재 시민 불안감 해소 '최선'

남부소방·해양경찰·폴리텍대 등
안전대책 마련 위해 합동TF 개최

포항시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선다. 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남부소방서, 포항해양경찰서, 폴리텍대, 포항TP, POMIA 등 유관기관과 배터리첨단산업과, 기후대기과, 공동주택과, 안전총괄과, 교통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포항시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전기차 화재안전 대책TF 단장인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및 전기차 충전기 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 추진과 안전한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한 정부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기차 해상운송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 시는 소방 당국과 공동주택 및 시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대피 훈련을 포함한 합동 소방훈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질식 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청도군, 추석 운전자금 45억 지원... 11개 업종 中 8개 대상

일반기업 3억·우대업체 5억
1년간 매출이자 3% 이차보전

청도군은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4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33개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85억원을 추천했으며 추석을 맞아 18억원을 추가 증액한 45억원을 운전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

업체는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 지원하며 1년간 대출이자 3%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 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사를 방문해 용자가능 여부와 운전자금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온라인 신청 (https://www.gfund.kr) 또는 방

문 신청 (군청 새마을경제과)이 가능하며 추석자금 접수기간은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추석자금 지원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p>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p> <p>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p>	<p>하나자동차매매 대표 박 원 섭</p> <p>경주시 동단로 108(용강동) ☎ 054-749-5858</p>	<p>경상투데이 광고 문의</p> <p>대표전화 ☎054-748-0070</p> <p>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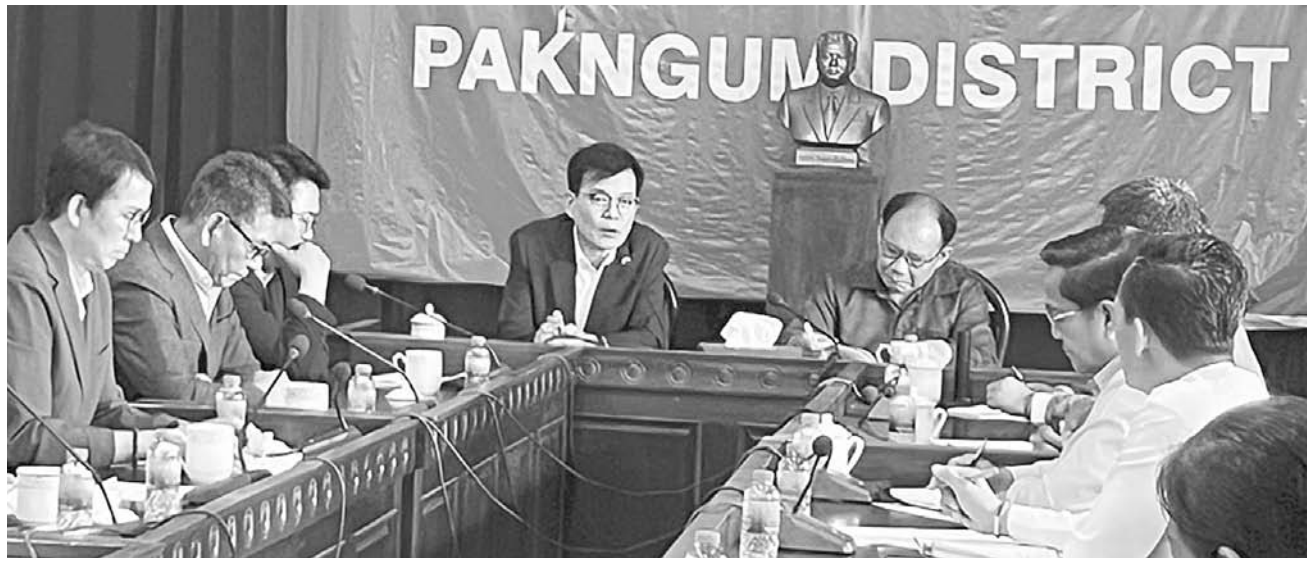
나라 부강의 초석 '새마을운동' 해외로 널리~

칠곡, 라오스 농사마을 방문 현지에 5년간 총 7.5억 지원해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 추진

칠곡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 뻑음구를 방문, 캄문 티엡타랏 시장과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칠곡군 지원 시범마을인 농사마을을 둘러봤다.

농사마을은 칠곡군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 1억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을 지원해 시범마을로 조성한 곳이며 130가구 7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칠곡군의 지원을 통해 새마을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마을공동체, 마을회관 건축, 관개수로 정비 등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버섯재배 시범사업과 작목반 운영, 농기계 보급 등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캄문 티엡타랏 뻑음구 시장과 농사마을 승부 부타봉 시장은 "새마을정신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

해 만들어 낸 그 동안의 성과가 지역을 바뀌었다"며 "이를 토대로 농사마을의 새마을 운동 정신이 인근 마을까지 널리 퍼져 지역사회뿐 아니라 나아가 라오스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임회승 부군수는 "해외새마을운동

은 단순히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전파하는 운동이다. 칠곡군에서도 라오스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a081700@naver.com

경북농어촌공사, 어린이의 버팀목 역할 최선

초록우산 대구본부와 업무협약 청렴문화 확산·사회적 나눔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와 청렴문화 확산 및 지역취약계층 후원을 위해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과 문희영 초록우산 대경총괄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공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희망적극' 캠페인과 취약계층 환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사업 추진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과 사회적 나눔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청렴희망적극'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실천 다짐 및 농업인 등 방문객의 청렴 응원 등에 대해 건당 1만원씩 적립,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렴 희망적극으로 모금된 금액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환아 후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우상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에 더욱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산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o@daum.net

울릉, 해양레저 메카로 '우뚝' ... 뱅에돔 전국 낚시대회 성료

2인 1조 1대 1 토너먼트 방식 진행 원성조 선수 858g 魚 잡아 '우승'

울릉군 체육회 주최·로얄경기낚시연맹이 주관한 '울릉군 뱅에돔 토너먼트 전국 낚시대회'가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울릉군 뱅에돔 토너먼트 전국 낚시대회는 지난 16일 전국에서 참여한 100명의 선수들이 2인 1조를 이뤄 1대 1 토너먼트 녹다운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한 라운드 동안 잡아 올린 25cm 이상 뱅에돔의 총중량으로 승부를 가렸다. 경기 결과 거제에서 참가한 원성조



선수가 858g을 낚아올려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창원에서 참가한 김성진 선수가 790g, 준준우승으로는 울진

에서 참가한 최은창 선수가 632g을 기록하며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편 대상어종의 체장에 대한 압력

한 규정 적용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해프닝을 주기도 했다.

대회 부대행사로 도동항 소공원에서 버싱공연과 일반인 대상 체험낚시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문가들의 낚시 노하우 전수와 시연을 하며 주민 및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남한권 군수는 개회식에서 "울릉도는 풍부한 해양동식물과, 천혜의 섬관광 자원을 가진 동해의 유일한 곳으로 이번 전국 낚시대회를 통해 해양레저 보물섬인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며 지역체육 활성화 및 관광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명 기자gst3000@naver.com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 염원

세미나 누적 참석자 5천명 달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강원도 평창 옹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행복원리세미나 누적 참석자가 5000여명에 이르며 앞으로 전국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복원리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가정연합에 따르면 지난

'제40차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세미나'는 신통일한국 특강, 발왕산 남북통일 기원 기도회 등의 일정으로 26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참석자는 5000여명에 이른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왕산 정상에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진행, 세미나 참석자들은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며 앞장서 통일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가정연합은 향후 '남북통일 기원! 행복원리세미나'를 전국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경기도 가평 HJ천원단지에서 개최되는 '남북통일 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으로 연결해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학자 총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천운이 한반도에 함께한다"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국제지도자들과 타종단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서밋, 신(神)통일한국시대 안착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포럼,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세미나, 남북통일기원 천운상속 천심수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를 평화의 길로 잇는 피스로드 행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대해 진행 중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청도군, 유아 눈높이 '흡연위해 예방교실'

청도군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청도어린이도서관에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됐다.

특히 28일에는 오전 10시, 11시 2차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흡연위해예방전문 강사가 직접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유아를 대상으로 한 흡연위해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금연 문화를 고취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블에이치플랜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볼거리 가득 '구미아시아연극제' 즐겨볼까?

**'연극, 세계를 바라보다' 주제로
내달 3일부터 국내외 극단 공연
일반 2만원·청소년 1만5천원
지역민은 20% 할인 혜택 적용**

구미시가 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소극장 공터다 및 공유공간 함께한DA에서 (사)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대표 김영심) 주관으로 2024 구미아시아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는 '여기, 세계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6일간 펼쳐지며 해외 극단 2개 팀(일본) 및 국내 5개 팀의 공식 공연과 6개 팀의 작은극장 기획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일정은 오는 9월 3일 해외 초청작인 일본 극단 TAIYO MAGIC FILM의 '롬 아카네'를 시작으로 4일 극단 도시락의 '하이타이', 5일 극발전소 301의 '인간을 보라', 6일 극단 현장의 '섬', 7일 일본 극단 아오키리미강의 '오늘, 엄마가 죽었다' 까지 총 5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예비

예술인이 준비한 기획공연으로 극단 벽벽의 '카멜레온', 극단 내가본다의 '러브팁스'를 선보인다.

러닝타임 30분의 작은극장 기획공연은 오는 9월 3일 극단 숲의 '금시계', 4일 극단 제라진의 '지구를 지켜라', 5일 극단 반디의 '신문지 이야기', 6일 극단 부엉이의 '호랑이 뱃속 구경가 유!', 7일 극단 썩썩의 '인형할머니만 모르는 이야기', 8일 극단 원터의 '할아버지와 썰매' 공연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연극 공연 외에도 참여 작품 소개를 위해 마련된 부대행사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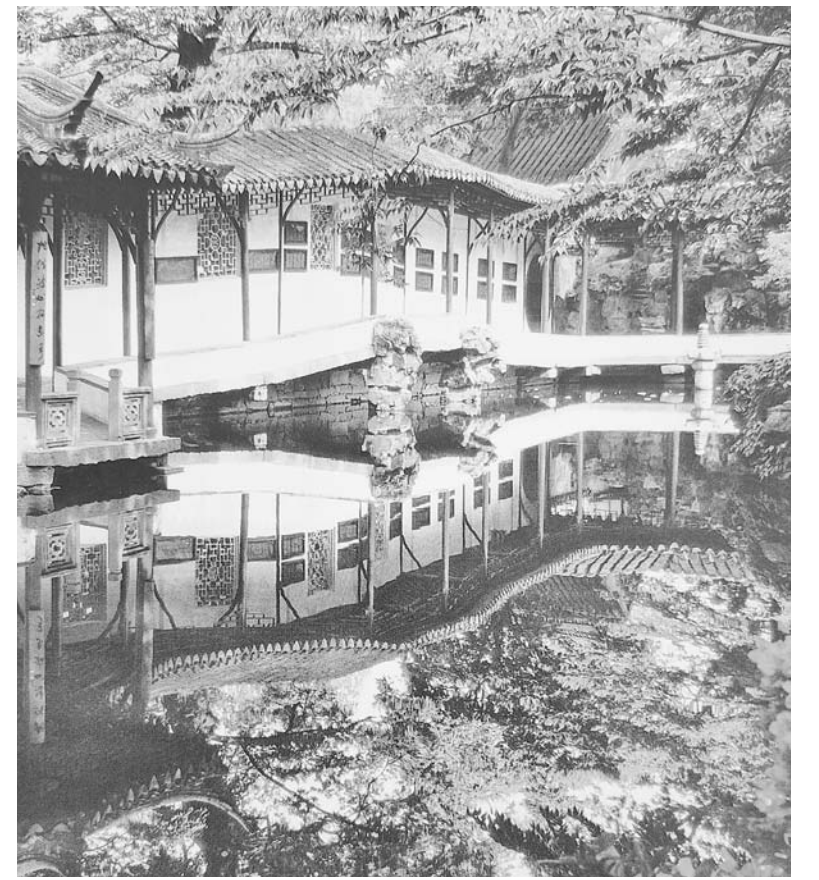
미아시아연극제展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심 지부장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아시아연극제는 늘 응원해 주는 구미시민이 있어 매년 힘을 얻어 행사를 준비한다"며 "좋은 작품을 함께 관람하는 즐거운 공연예술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연 관람료는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으로 네이버, 예스24,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온라인 예매와 현장 창구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구미 시민은 20% 할인이 적용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윤오세가연구소 유정 정은숙의 수요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사군자



원림풍경.

명(明) 식물 속 사군자, 문인의 관조(6) (觀照)

화훼(花卉)화와 초충(草蟲), 영모(翎毛)화 그리고 사군자(四君子)는 꾸준히 식물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의 소재로 그려져 왔다.

중국의 각 성에서 산재해 있는 토종식물과 외래 유입된 식물군은 매우 다양한 품종을 갖추게 됐다.

당대 번성하던 화려한 귀족사회의 흐름과 어울려 예술 문화가 도입되고 웅장한 디테일은 중국 정원문화의 기본 양식으로 이어져 왔다.

자유로운 세계 최고 강대국의 문화 흥취로 인한 불교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섬서성과 하북성의 선화 묘실의 고분벽화를 보면 대나무, 매화, 모란, 학의 상서로운 화조화로 장식됐다.

이를 통해 고대에도 현실과 내세의 삶을 희구했음을 알 수 있다.



한간, 조야도(照夜圖).



산서성, 화조, 목조부분.



하북성묘실, 화조도1.

개관 20년 영주 소수박물관, 회고·평가로 '새로운 도약' 다짐

기증·기탁자 참석 학술대회서
상설전시실 개관·발전안 모색

영주시 소수박물관은 지난 23일 기증·기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개막 및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 지역 전문가, 관련 연구자들을 초청해 소수박물관 본관 상설전시실 재개관을 축하하고 지난 20년(2004년 9월 22일 개관)에 대한 회고와 평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상설전시실 개막식 및 전시실 관람, 2부는 학술대회(개회, 축사, 주제발표 4건, 종합토론, 폐회)로 각각 소수박물관 전시실 및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학술대회 주제발표는 △ '서원 자료의 현황과 소수박물관의 역할' (이수환 영남대 명예교수) △ '소수박물관 소장 기록자료의 가치와 과제'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 △ '영주 지역사 연구 발



굴과 비전' (강구울 동양대 교수) △ '소수박물관의 위상과 발전 전략' (김충배 허준박물관 관장)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이한상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우인수 경북대 명예교수, 장인진 한강학연구원 부원장, 송호상 동양대 교수, 김태식 국토문화재연구

원 전문위원이 참여해 각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담당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학술대회 종료 후 정리·보완해 소수박물관 학술총서로 오는 12월 발간·배포된다.

박남서 시장은 "지역의 여러 문종과 유림, 기관, 주민분들께서 소중한 유

물음 기증·기탁해주신 덕분에 소수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을 수 있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발간 삼아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성주군, 성밖숲 퍼플피플 음악회 성료

백문동 개화 시기 맞춰 개최
이들간 200여명 발길 '인기'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개최된 성밖숲 퍼플피플 음악회가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성료됐다.

이번 음악회는 전국 유일의 왕버들 나무 군락지인 성밖숲 백문동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돼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실경 음악회로 문화

예술 향연을 장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경쟁력을 확보코자 개최됐으며 이틀간 200여명의 가족 단위 관객들이 음악회를 관람했다.

지난 23일에는 재즈밴드와 뮤지컬 갈라 공연, 24일에는 별고을 오케스트라와 행복아코디언 색소폰 봉사단, 경북도 도립교향악단과 성악 4중창 수성솔로이스츠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어린이 인형극 '삐노키오' 안동 공연

29·30·31일 안동문예전당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두 번째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어린이 인형극 '삐노키오'가 이달 29일 오전 10시 30분, 30일 오전 10시 30분, 31일 오전 11시 3회에 걸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에서 진행된다.

어린이 인형극 삐노키오는 익숙한

동화 '피노키오'에 한국적 감성을 더한 인형극으로 피노키오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인형 디자이너 겸 일러스트레이터 지미 데이비스와 국내 극단 로기나레가 협업해 만든 인형극이다.

공연은 전석 1만원으로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하북성묘실, 화조도2.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의성, 레시피 활용 쌀 소비 '촉진'



의성군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우리음식연구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은 3주간 매주 화요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실습실에서 진행됐으며 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접목한 쌀 요리 레시피를 개발해 쌀 중심 식생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성립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개설됐다.

누룩을 활용에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쌀누룩을 만드는 방법부터 쌀꽃요거트, 쌀꽃두유, 누룩식혜, 발효 저염된장, 마늘리조토 등 우리 쌀을 활용한 특색 있고 건강에 좋은 요리들로 구성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주수 군수는 "우리 쌀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소비 또한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상주 북문동, 대구 군부대 유치 염원



상주시 북문동은 지난 26일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연내 최종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 군부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및 퍼포먼스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매달 실시하는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을 대상으로 북문동 신중원 통장이 직접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이전 예정지, 이전 부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고령, 대도시 대형마트에 농특산물 진출로 '활짝'

롯데마트·도소상공인협약 MOU 판매로 자문·마케팅 지원 등 협력



고령군은 지난 26일 롯데마트, 경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경소협)과 군청에서 대도시 대형마트 로컬마켓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철 군수와 배재호 롯데마트 영남서부지역장, 권기상 경북도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상호 신뢰와 지원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고령군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등의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판매 지원 및 자문, 마케팅 지원, 우수제품 판매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마트의 넓은

유통망과 대규모 고객층을 통한 유통범위와 매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롯데마트 및 경소협의 물류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철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와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풍부한 자연과 전통이 담긴 고령군의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고령, 대만 유소년 축구팀과 스포츠 교류

통화초 20명, 개실마을 내방

고령군은 지난 28일 대만 가오슝의 룡화초등학교(龍華國小) 유소년 축구팀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고령군 쌍림면 개실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룡화초등학교 축구팀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경북지역의 유소년 축구팀과 교류전을 가지기 위해 방문했고 방문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 체험도 하

고 돌아갈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방문 4일 차에 고령을 방문해 개실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마을투어를 마치고 합천으로 이동했다. 이들 유소년 축구팀은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도 축구 교류전을 가질 계획이며 고령군은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바살은 예천청년회, 새 생명 잇는 헌혈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청년회는 27일 군문화회관 앞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고 헌혈 봉사 및 헌혈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재환 회장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준 회원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살은 예천군협의회는 해마다 사랑의 헌혈 참여 캠페인, 건전 생활 실천 강연회 등 사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도高,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 '훈훈'



청도고등학교는 지난 23일 동아리 활동 일환으로 학교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4일 이후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과 관심을 통해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학생들

의 마음에서 마련됐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편집한 스마트 기기 사용법뿐 아니라 구급약 세트를 준비해 응급처치 시 사용법을 알려주고 각 가정에 보급했다.

또한 치매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간단한 조립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동 정

유·초·중등 공무원 임명장 수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8일 오후 3시 본청 응비관에서 열리는 9월 1일 자 임용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희망나눔 성금전달 기탁식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 28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개최되는 희망나눔 성금전달 기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참석



박남서 영주시장은 28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군청-공무직노조 노사협의회 참석



박한국 봉화군수는 28일 오후 2시 군청 사회의실에서 열리는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소통을 이어간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참석



최재훈 달성군수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군수실에서 개최되는 2024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기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청송이웃사촌센터, 주민강사 체험



청송군은 지난 21일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가 안덕면 마실안덕센터에서 주민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민강사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주민강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 기부하는 것으로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중심이 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연 염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2회로 구성돼 있으며 28일에도 지역주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구름계곡 물따라 바람따라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과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해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연점유?
인동 권씨 문중에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로 계곡위의 용주대에 자리해 폭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자 앞에는 약300년 된 은행나무가 보초수로 지정되어 있어 가을이 되면 화려한 단풍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가 됩니다.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움 모습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01	구름을 걷는 선비		
구름 속으로	서원 및 배향인물에 대한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의 다도·서예체험	30분	
백성과 자연을 사랑한 선비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국악공연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2	구름속의 선비 (가후번역(대중프로그램))		
구름 속으로	문재산의 물과 관련된 설화와 지리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설명	20분	
구름을 그리는 선비	선비복 체험	30분	
구름 플로깅	폐연수막 주머니를 이용한 플로깅 활동	30분	
유연점유	자연의 소리와 함께 다도영상	30분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3	기미를 알고 권도를 행하는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	서원의 기능과 배향인물을 통해 그 시대상을 배우고 유적자들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의	10:00 12:00	

*상기 일정은 참가단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년 3월~11월 신청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후원



지난 26일 고은의원 의료진 20여명은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신대리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정연석 고은의원 행정원장과 치과원장, 전문 물리치료사 등 약 20여명의 의료진 및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료진 들은 금호읍 호남리, 신대리 주민에게 활력징후 체크, 혈당검사, 구강검진, 만성퇴행성질환 건강상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연석 행정원장은 “고은의원이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태국 읍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의료진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산양면민 “제2중경 문경 유치” 한뜻



문경시 산양면은 지난 26일 산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금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금천문화센터 기금 전환 계획을 포함해 운동기구 선정 등 금천문화센터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안심의 등을 실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종료 후 문경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중인 제2중경경찰학교 문경유치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구자근 면장은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제2중경경찰학교 문경 유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구 면장은 “제2중경경찰학교 문경유치로 지방시대의 중심도시 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금천문화센터 운영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따뜻한 위로 전하는 ‘대검 경주지청·경주범피’

범피 피해자 법 체험교실 열어
아픔 공감·기념사진 등 온정 나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경주범피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는 27일 ‘범피 피해자 법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법 체험교실은 최소연 부장검사 주재로 신승재 검사와 참가자들이 사각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정한 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최 부장검사는 경청 후 궁금증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했다.

최명규 지청장은 “여러분들이 범피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잠시나마 내 집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

라”며 지청장실을 개방하고 피해자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친근감을 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최소연 부장검사는 범피처 처벌과 범피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검찰의 역할을 소개하고 “검사가 범피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빠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상춘 경주범피 이사장은 “오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만큼 이분들이 아픔을 해소하고 범피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l12@daum.net

경주농협 직원, 신속 대처로 피싱 피해 예방

경주농협, 보이스 피싱 5000만원 예방한 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경주경찰서는 27일 보이스 피싱 유괴자인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1일 농협 방문 고객이 2000만원 예금을 해지해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으로 의심돼 예금 해지 중단 및 112 신고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머느리가 입금한 3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조

록 해 함께 5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협조해 고객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112 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7.9% 감소했으며 1억5000만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박봉수 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 지속



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동천사 백석 스님, 영주 큰 일꾼 육성 ‘동행’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동천사 백석 스님이 인재육성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봉현면 도솔산에 위치한 동천사는 올해 30주년을 맞이, 이를 기념해 백석 스님이 사비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백석 스님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지역을 걱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며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청도 이서면 지보협, 저출생 극복 ‘지원사격’



청도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저출생 극복 성금 100만원을 청도군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을 대

상으로 민관협력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청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김진수 제81대 상주경찰서장 취임

김진수 총경이 제81대 상주경찰서장으로 지난 26일 취임했다.

김진수 신임 상주경찰서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2000년 간부후보로 경찰에 임용, 2023년 총경 승진했으며 강원청 감찰계장, 경기북부청 무기확보화장비과장,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취임식은 중간관리자 등이 참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각 사무실 방문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김 서장은 “친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상주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직원들 간 소통, 화합으로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안계면, 민관학협동 벽화 조성 ‘훈훈’



의성군 안계면은 행복의성지원센터, 안계고등학교,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행복이 깃든 마을벽화’ 사업을 통해 안계면 용기5리 마을 정류장이 생동감 있게 변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주도 행복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용기5리 마을주민 20여명, 안계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30명, 행복의성지원센터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민·관·학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학생,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형성하고 안계시외버스정류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밝고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참여 대상자들은 “비록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훈 면장은 “앞으로도 행복이 넘치는 안계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예술가·학생이 상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길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빛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맛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엔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심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숲길,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인왕산, 선바위, 남이로, 삼의계곡, 수리계곡, 본신계곡, 참배공원, 축백수림, 외씨배산길
* 영양의 역사, 을사늑약기념관, 서서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천마을, 김선생,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반달별이전묘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부전시장,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문화발전단지, 흥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한국배관세척사업협회를 통해 배관세척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이 KPCA 세척 봉사단을 조직,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 재능기부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수도배관 세척으로 물 건강·국민 건강 지킨다

배관세척사업협회, 전문인 양성 요람으로 우뚝
수도·난방 배관 청소로 가정 안전 '든든하게'
국가 공헌·ESG 운동 등 건강 사회문화 구축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뤄져 있을 만큼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적절한 양과 타입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혈액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 곳곳에 전달한다. 물 부족 상태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충분한 물 섭취는 요로결석, 요로계 암, 대장암, 유방암, 소아비만 등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정신적, 육체적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정도로 우리 몸에 물은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노후 배관에 의한 물의 오염은 그동안 정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배관세척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배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녹과 슬러지, 이끼 등 이물질이 쌓이면서 세균과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쌓임의 정도는 배관의 종류와 물의 깨끗함과 물의 흐름에 따라 차이는 크다. 물이 멈춰 있을 때 이끼와 녹이 잘 슬기 때문이다. 배관 안에서 녹이 쌓이면 수압이 약해지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점점 더 많은 녹이 쌓이고 부식해 된다.

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이 때문이다. 이런 상태면 빠른 시간 내에 관을 교체해야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수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수도법 제33조3항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준공 5년 후 2년에 1회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수도법 벌칙 83조)도 마련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18.18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2층에서 가르키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000㎡(15,00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특히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2항은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또한 수도급수조례를 통해 시장이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한국배관세척사업협회는 물과 공기방울을 이용해 수도배관 청소, 난방배관 세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한편 '배관세척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협회는 배관세척 관련 외의 중요한 교육으로 인지인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보건안전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한 협회는 배관세척 이론, 실기, 현장실습 평가 등 엄격한 교육을 통해 이미 6기 '배관세척사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필드에서 활발한 영업활동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활동(배관청소)을 하고 있다. 협회는 특성화된 수도배관 세척시스템과 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수도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특히 파동수기의 원리나 특수가스에너지, 공기압축과 물의 회전을 이용해 수도배관의 녹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술로 조달청에 등록했다.

협회는 여성 및 장애인 기업으로서 공공 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교육일정을 세워 전국적인 배관세척사 양성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문의와 각 건물의 점검 또는 세척 의뢰는 김재욱 한국배관세척사업협회 중앙회장(010-9870-7684)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재욱 회장은 "배관세척사 민간자격취득 전문교육원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고 모두가 건강한 물 음용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공헌활동과 ESG 운동에 참여하며 깨끗한 배관 세척으로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f12@daum.net



배관세척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수도배관 청소중 필터에 발생한 이물질

수도배관 청소중 이물질로 변색된 필터



배관세척사 양성 교육



재능기부 세척 봉사



■ 특별기고

경북도가 옳다

김휘대
전 안동시 풍천면장



국가나 지역의 역사·문화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 시작(부활)하면서 40여개의 도·농복합도시 통합 10년 후에도 정부에서 재정효율을 중심으로 통합효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예상외로 약간의 재정효율만 좋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균형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통합 중심으로 집중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행정비용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지난 2006년부터 행정효율화로 2단계 행정개편을 시행했으나 예상외로 심각한 역효과만 나타나서 지금 자치시·군을 다시 분할(부활) 신청하고 있다. 분명히 광역 행정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구시 통합안은 광역 2단계 행정을 효율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에서는 수평적인 광역통합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시·군·구 자치분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할 하는 2단계 대구중심 집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통합안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지방자치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단체

인 시·군·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지원하고 광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지방자치기 돼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비교적 크다. 기초단체는 10배에서 50배까지 크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500만 이상 메가시티를 형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위해 광역단체 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작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뚝뚝 뭉쳐서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와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국가가 부담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공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행정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시·군·구 기초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으로 자생력을 갖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경북도가 백번 옳다.

대구시의 통합안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개발·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다.

지방자치·분권으로 대구·경북지역이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군·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꿔 제2수도권을 만들자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해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오는 2045년 인구 1200만에 GRDP(지역총생산) 8배의 장밋빛 꿈으로 시·군·구 지역 주민들까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곳은 없다.

국내의 마·창·진, 여수, 청원, 제주 등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주민편의 3대 효과가 좋아진 곳이 없다. 해외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행정통합으로 국가와 광역경제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주변지역 인구증가, 균형발전, 주민편의 모두가 후퇴했다는 평가이다.

■ 독자기고

‘졸음운전’ 제발 참지 마세요

윤명국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나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한번쯤 졸음을 참고 운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자면 고속도로를 100km(h)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해 보자.

1초에 약 27.8m를 가게 되며 그 속도에서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까지는 약 70m의 거리가 필요하다. 즉 1초를 졸게 된다면 약 100m를 무방비 상태로 진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라고 한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

이다. 이런 졸음운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장거리 운행은 사전에 계획된 경우가 많으므로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둘째 창문을 닫고 장시간 운전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 환기시키자.

셋째 동승자가 운전자 말벗이 돼 주자. 넷째 장거리 운행 전 졸음을 예방하는 커피, 사탕, 커피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졸음운전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장거리 운행 중이라면 피로감이 없더라도 수시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자.

얼마 전 타지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오던 중 있었던 일이다.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감을 참고 있을 때쯤 섬뜩한 문구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문구는 바로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순간 뒷 좌석에서 나를 믿고 편안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죄책감이 느껴졌다.

■ 사설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문제는 의료진이 없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번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이번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재유행이 현실화했을 때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이 국내로 입고돼 이번 주 내로 공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총괄단장도 이날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이 국내에 입고돼 이번 주 내 공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하루 사용량은 5000명 내외로 현재 지역에는 5만명 이상이 공급됐으며 앞으로 공급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날 입고된 물량은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20곳 의료기관 코로나 표본 감시 입원환자 수 증가는 지난 7월 3주 226명에서 7월 4주 474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서 8월 1주 880명, 8월 2주 1366명, 8월 3주 1444명으로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반장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점 예측치인 35만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치료제 공급보다는 의료진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의료대안이 6개월을 넘기면서 남아있는 인력은 번아웃이 온 데다가 운영질환,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전문의 등은 과부하로 병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곳곳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진료 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병원에 코로나19) 격리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에 전원을 신청해도 (입원 수속 등을 담당하는)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전원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수개월 동안 이어온 의료 공백을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며 메워왔는데 코로나19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관두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코로나19 거점진단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전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병동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걸려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 나와 수액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정부에서 인력 파견을 해줬지만 지금은 해주지 않아 의료진들의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예정이다.

지난 19일~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별로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남기더라도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새 희망  구미시대

 구미시

비수도권 유일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기회의 땅, 구미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센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구미시, 국가산단 57만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유호 기업지원사업
DGIST-LSIGO
유망기업 육성과
혁신 기술개발공간

1억 5천만평 이상
유망기업 1,100여개
첨단산업
특구 지정

